

現代와 哲學的 精神①

金午星

現代가 轉換期라는데 疑意를 가질 사람은 업섯슬 듯하다. 얼마 전까지 이것을 否認하던 層에서 이즘은 더 한층 熱意를 가지고 主張하고 있다. 도리어 前부터 그것을 指摘해오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즘은 벌써 現代의 特徵을 代表할 만치 熟語化된 『轉換期란』 말을 避하는 傾向이 업지 안타. 그래서 그들은 轉換期란 말 代身에 『事實』 또는 『事實의 世紀』·『歷史的 偶然』·『黃昏』·『暴風雨』 등의 形容詞를 쓰고 있다. 허나 轉換期란 말 代身에 생겨지는 이러한 形容詞들은 嚴密히 생각하면 現代가 轉換期라는 것을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 그 轉換에서의 方向을 明確히 把握할 수 업는데서 오는 좀 曖昧化한 概念에 지내지 아는 것이다.

그러타! 오늘이 世界史의 一大轉換을 가져올 時代라는 것을 否認하는 사람은 업슬 것이로되 그것이 어떤 方向으로 轉換될 것인가를 明確히 豫見하는 사람은 極히 드물 것이다. 歷史上의 모든 轉換期에 잇서서도 오늘처럼 그 方向을 豫測할 수 업서 彷徨하던 時代는 아마도 업섯슬 것이다. 近代에의 轉換期이던 저-『루네상쓰』時代에 잇서서는 그들은 어느 정도의 近代社會에 對한 理念을 가지고 그 方向에서 運動을 進行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에 잇서 압날의 方向을 豫測하고 거기에 對한 『理念을 세우기란 대단히 어려운 듯십다. 勿論 우리 現實에서 『東亞의 新 秩序』가 要求되고 『西歐에서 歐羅巴의 新 秩序』가 要求되는 것등 『政治的 意欲』에서 表現되는 바가 한 개의 새로운 世界史的 方向인듯도 시프나 그것도 아직 理念化, 體系化되지 못했스며 또 政治的 意欲만이 世界史의 方向을 根本적으로 決定한달 수도 업는 것이다.

이리하여 世界史的 轉換의 前夜에 살고 잇는 우리들은 渦卷과 가치 轉變하는 現實을 한 개의 事實로 受容하려고도 하며 또 黃昏이니 暴風雨니 하는 形容詞로 불리보기도 하고 잇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事實에 對하여 서

뿌른 『이데오로기』의 豫言을 가지고 덤비는 것은 가시담불을 들어서는 것보다도 더 危險한 것이라고 赤信號를 휘두르는 사람까지 잇게된 것이다.

하나 좀더 沈着하게 생각한다면 現實이 제 아무리 泯亂하다 하더라도 歷史 스스로가 志向하는 바 方向이 업슬 것이다. 웨-그러나하면 泯亂 그것이 歷史의 終末을 意味하는 것은 아닐 터이니까. 本來 轉換期란 表面으로는 만흔 『可能性을』 包藏하고 있다. 轉換期는 바꾸어 말하면 可能的 時代라고도 할 수 잇는 것이다. 오늘에 잇서 우리가 來日의 方向을 明瞭히 把握치 못하는 것은 그 實現의 泯亂 때문에서만 아니라 또한 今日이 만흔 可能性을 內包하고 잇는 때문이리라. 사람들은 今日의 事變이 너무도 泯亂한 만치 그 事實의 뒤에 올 것도 豫測할 수 업스리만치 여러 가지 事態가 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한 가만히 생각해보면 根據업는 可能이란 생각할 수 업는 것이다. 暴風雨가 甚하다고 그것이 하늘을 무너트린다는가 地球를 뿌리채 뽑아 업시할 可能性도 가지고 잇는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暴風雨의 由來를 氣候의 變則이라 보고 그것이 『氣壓의 變動』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된다면 나아가서는 暴風雨가 나하 노흔 事態의 可能性이란 것도 豫測할수 업는 것은 아닐 것이다. 勿論 暴風雨의 事態가 氣象學的 豫測을 깨트리는데 例가 업지 안타. 허나 그것 때문에 氣象學的 權威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暴風雨가 內包한 可能性을 根本적으로 뒤집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타면 暴風雨에 比較되는 今日의 事實도 그 泯亂에의 歷史的 現實的 根據를 洞察함으로써 그 泯亂이 內包하고 잇는 新 事態에의 可能性이란 것을 豫測할 수도 잇슬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暴風雨를 測定하는데 氣象學이 必要함과 가치 今日의 事實을 測定하는데도 氣象學에 代할 學問的인 武器가 잇서야 할 것이다. 그러면 『事實의 世紀』인 現代의 轉換期를 豫測하는 氣象學的 武器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 ×

近代人の 精神生活에 가장 기괴 浸透되어 잇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업시 科學的 精神이다. 그가 『科學的 敎養』을 싸앗거나 못싸앗거나를 물을 것이 업서 사람들은 自己내의 온갖 見解와 判斷을 科學的이기를 要求하게 되어있다. 非科學的이란 말처럼 近代人에게는 人格을 侮辱하는 言辭는 업슬 것이다.

科學的 精神! 이것은 近代市民社會을 나허준 根本的 精神의 하나이다. 그것은 中世的인 것을 拒否하면서 厥起된 『루네쌍스』運動이 自然科學자들에 依하여 만히 運轉되어 왔음을 보앗서도 알 수 잇는 일이며 더욱이 『베-콘 [베이컨]』·『데칼트[데카르트]』以來에 近代哲學이 모두 그 根據에 科學을 갖고 그 基礎 주는 것을 自己의 義務로하고 잇음을 보아서도 明瞭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市民經濟는 全혀 科學의 힘에 依하여 組成되었스며 또 經營되
어오고 잇는 것이니 科學을 떠나 近代市民社會는 생각할 수도 업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科學的 精神은 市民社會또는 市民文化의 母胎가 되어 잇던
것이다.